

익산, 자원봉사 으뜸도시 선포

1시민 1자원봉사 나눔혜택 강화... '봉사자-수혜자' 다이로운 자원봉사도시 로드맵 제시

익산시는 '봉사자-수혜자 모두 다이로운 나눔 공동체를 활성화해 1시민 1자원봉사 으뜸도시'로 도약한다.

시는 우수자원봉사자 조건완화, 자원봉사 마일리지 확대시행, 1시민 1자원봉사 등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자원봉사 참여도를 대폭 이끌어 도시브랜드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자원봉사 으뜸도시 선포식 및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정현을 익산시청과 최종오 시장의, 업무협약 익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및 유관기관장 등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광보건대학교 WM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선포식 및 대회를 시작으로 으뜸도시 선포식 핸드프린팅,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수여 및 감사패 전달, 자원봉사자 활동 영상 상영 및 문화공연으로 진행됐다.

정현을 시장은 "코로나 재난피해 등 어려운 시기마다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나눔과 봉사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자원봉사 으뜸도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정 시장은 "자발적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혜택을 통해 봉사자와 수혜자가 다이로운 시스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봉사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꼭꼭 제공해 봉사 참여도를 높여나갈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우수봉사자 기준을 조려 개정을 통해 당초 연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대폭 완화해 자원봉사자 사기진작과 함께 마일리지 이용 확대 및 효용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예산계약·생활문화·일자리 3개 분야에 15개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1인 수의계약 시 우대계약 혜택이 주어진다. 여성화관 연간 1개 무료강좌, 보건소 무료건강검진, 예술의전당 연회 무료 기획공연과 공연료 50% 감면해준다.

65세 이상은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중식 무료쿠폰을 지원하고, 다이로운 일자리 및 기간제 근로자 선발 시 우수자원봉사 실적에 가점 항목에 추가해 우대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1시민 1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별 자원봉사단체 및 기업봉사의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하고 우수한 실적의 읍면동과 기업봉사에 적극적인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는 2024년도 생활환경개선사업비를 순위별 차등 증액 편성한다. 농로 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등의 농업기반 시설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해주는 혜택도 늘어난다. 또 자원봉사 우수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가점추가 우대를 받는다.

시는 내년도부터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마일리지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새로운 마일리지 혜택이 봉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1시민 1자원봉사 으뜸도시 익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청년·신혼부부 주택보증금 지원

익산시, 3억 전세집까지 이자지원... 익산형주거 강화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세금 이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익산형 주거안정'을 강화했다.

시에 따르면 주택임차보증금 기준을 3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이자 3.0%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 계층까지 확대한다.

이는 금리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부동산 시장가에 맞춘 실질적 전세금 기준과 이자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시는 이달부터 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이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은 만19~39세이며 신혼부부는 나이제한 없이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가구에 한한다. 연소득 기준은 본인 5,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협약은행을 통한 전세대출 시 대출이자 3.0% 금액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에서 만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지 못했던 청년층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사업시행부터 11월 말 현재까지 누적 250여 가구를 선정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소진시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단,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등 대출자는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 (1577-0072), 및 주거정책계(859-5549)로 문의하면 된다. 대출관련 사전 상담은 관내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지원 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현대시조 아버지 '가람문학관', 관람객 이어져

현대시조의 아버지, 가람 이병기 선생의 삶과 글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익산 가람문학관에 관람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애가 있는 여산면에 2017년부터 가람문학관이 운영을 시작한 이래 입소문을 타고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육군부사관학교의 단체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가람문학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오호수 가람문학관 명예관장은 "최근 육군부사관학교 관계자와 후보생 및 가족 등이 꾸준히 방문해주고 있다"며 "인근에 위치해있다 하더라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가람문학관을 방문할 수 있게 협조해주신 육군부사관학교와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하반기부터 문인과 국문학 전공자가 단체로 방문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각종 협회와 동문회 중·고등학교, 여행기재단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 같은 꾸준한 인기는 가람 선생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생가를 배경으로 일상 속에서 작품 소재를 발견했던 선생님의 삶과 문학을 함께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람문학관은 현대시조와 국문학을 대표하는 가람 이병기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꾸준히 기획전시와 청각, 시각 등을 다방면으로 활용해 전시 중이다.

특히 문학관 인근에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가 있어서 연계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으며, 현재 개최중인 기획전 '가람을 그리다'를 통해 가람 이병기 선생과 생가의 모습을 담은 그림 8점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문학관에 마련된 체험실에서 창작 체험을 한 학생은 "가람 선생님이 우리 시조 역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으며, 또 왜 우리말과 글이 중요한지 들으며 막연한 생각이 들었는데, 문학관에 와서 막연했던 생각들이 정리된 느낌이 들고 우리말과 글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접수 완료

군산시는 1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접수 결과 농·수산물과 가공품 등 총 22개의 지역 업체가 공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요소로 그동안 시는 군산 시민의 특색이 담긴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이를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답례품 공급업체 공고문을 확정했으며 이러한 빈틈 없는 제도시행 준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울산 남구·동구·울주군 등이 군산을 방문한 바 있다.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군산=김판곤기자



선광, 군산교육발전재단 시에 2천만원 기탁

군산시는 1일 (주)선광(군산지사장 김시진)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1천만원, 군산시 1천만원, 총 2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 물류기업인 (주)선광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재단에 기탁한 장학금만 1억 5천만원에 달한다. 또 2013년부터 향운노조원 자녀 장학금 지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부해 왔으며 지역과 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는 기업이다.

이날 (주)선광에서 시에 전달한 성금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되는 희망2023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으며,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및 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시진 군산지사는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과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2023년 다함께 배우는 교육도시 기반 마련

군산시, 진학교육·평생교육 두 마리 토끼 잡는 교육선도도시 될 것

군산시는 오는 내년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진학교육과 평생교육으로 '교육선도 도시'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정책의 핵심을 교육에 두고 출생부터 대학까지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역의 교육인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학습지원 플랫폼

'공부의 명수'를 구축해 도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도권과의 학업 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 청소년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중고등학생 진로탐색 멘토링 캠프', '청소년 자기계발 연수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교육협력센터를 설치해 군산 교육발전진흥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창의·재능 학습 지원, 기초 학력 지원 등 전 학령 인구 대상 폭넓은 학습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전 세대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상상도서관 건립', '도서관 장서 확충',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호원대 IT소프트웨어보안학과, 산·학·관 키플링 사업 학술제 개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IT소프트웨어보안학과는 1일부터 2일까지 5동 정보통신관에서 2022 대학 산·학·관 키플링 사업 학술제 및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제는 사업기간 동안 진행된 융합 프로젝트 및 캡스톤 디자인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설명하는 자리로 매년 높은 수준의 작품을 출시하여 지속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한 학과 동문과 교수들을 비롯한 산학관 키플링 사업단 참여기업들이 참여하여 서로 격려하고 친찬하는 시간을 공유한다.

IoT 융합보안 SW 전문인력양성 사업단은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대학 산·학·관 키플링사업으로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한다. 호원대학교는 IT소프트웨어보안학과, 작

업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돕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호원대학교 IoT 융합보안 SW 전문인력양성 사업단은 지난 2021년 사업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됐다.

IoT 융합보안 SW 전문인력양성 사업단 참여 학생들은 그간의 프로젝트 결과를 출품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